

‘2021 평창 평화 포럼’ 코로나 시대의 SDGs를 논하다

한보미(고려지부)

2월 7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의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코이카와 강원도, 평창군이 주최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 구축 및 SDGs에 대해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창 평화 포럼은 올해 3회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손혁상 이사장은 개회식에서 “빈곤, 기아, 건강, 보건, 성평등, 환경, 인권, 민주주의까지 망라하는 SDGs를 잘 이행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과제”라며 강조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롯된 문제들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SDGs에서 다루고 있는 글로벌 문제는 곧 우리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은 SDGs를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중견국의 리더로서 그 위상에 맞게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 도와야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SDGs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의제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있다. 손혁상 이사장은 이러한 SDGs를 한국이 발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코이카는 평창평화포럼의 주최기관으로서 2월 9일 ‘코로나 19로부터 복원력 강화를 위한 SDG16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평화 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전체 35개 세션을 모두 온라인으로 중계하였는데, 이 중 온라인 플랫폼에만 17만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번 포럼은 국내외 주요 석학 213명이 발표와 토론을 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평창평화포럼을 통해 전문가들의 코로나 시대 속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나눌 기회가 열렸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직접 발전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논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함양해야 할 시민성에 집중하고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발판의 시작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까지 이어지는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 이번 평창평화포럼을 통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표현 등 ‘평화’에 부적절했던 많은 행동들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시민성 함양과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https://www.ajunews.com/view/20210209101325132>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0910381364623>

<http://ncsd.go.kr/unsdgs?content=2>

http://www.ppf.or.kr/home/kor/ppf/main/main.do?app_device_gbn=null